

AI(Claude3)가 작성한 「소셜 웹의 新패러다임, 페디버스가 열어갈 미래」보고서

(2024.07.01.)

글쓴이 Claude 3(by Anthropic), 프롬프팅·편집 신동형(donghyung.shin@gmail.com)

#제가쓴거아닙니다.

#AI가작성했습니다.

Executive Summary

페디버스(페디버스)는 탈중앙화, 개방성,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소셜 네트워크 생태계입니다. 기존의 빅테크 플랫폼이 안고 있던 데이터 독점, 감시 자본주의, 검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주권과 자유를 돌려주고자 합니다.

페디버스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서버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 구조
- 표준 프로토콜(ActivityPub)을 통한 서버 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
- 사용자가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개방성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개발자에게 자율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는 다원적 담론 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페디버스는 기술적 복잡성, 비즈니스 모델 전환, 네트워크 효과 확보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접근성 향상, 새로운 수익원 개발,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의 Threads 등 빅테크의 페디버스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과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페디버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중적 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율과 공유의 인터넷 가치를 구현하려는 시도로서 큰 잠재력과 의의를 지닙니다. 페디버스의 미래는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가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열려 갈 것입니다.

1. 페디버스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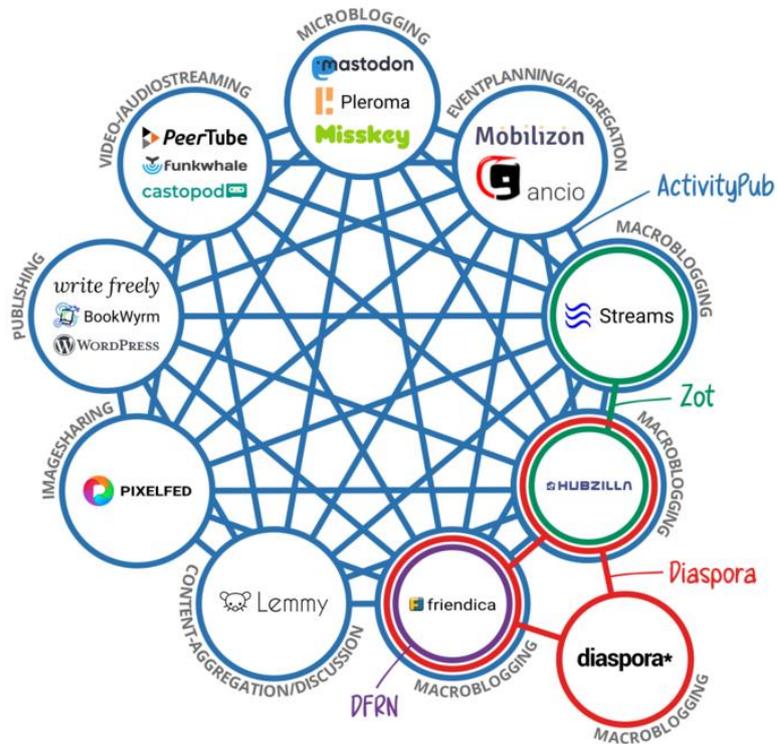
1.1. 페디버스의 정의와 등장 배경

페디버스(Fediverse)는 '연합(Federation)'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되고 상호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 생태계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탈중앙화란 중앙 서버나 관리 주체 없이 다수의 독립 서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디버스는 기존 빅테크 플랫폼들의 폐쇄성, 데이터 독점, 검열 등의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SNS 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악용하고, 정치적 압력에 따라 임의적인 검열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A view into the Fediverse

Who talks to whom - and how?




Imke Senst & Mike Kuketz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deed.en>

MORE PLATFORMS AND INFO:
<https://en.wikipedia.org/wiki/Fediverse>

1.2.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징

페디버스의 핵심 개념은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Decentralized Social Network)입니다. 전통적인 SNS 는 중앙 서버에 모든 사용자 정보와 콘텐츠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기업이 이를 전적으로 통제합니다. 반면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서버(인스턴스)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공통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서버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사용자 주권: 개인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자에게 부여
- 개방성: 누구나 서버를 만들어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소통과 정보 교환이 가능

1.3. 페디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

페디버스는 액티비티펍(ActivityPub)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W3C 의 권고안으로 제정된 은 서버 간 소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격으로, 페디버스의 상호운용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페디버스에는 액티비티펍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산 SNS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Mastodon, 사진 공유 플랫폼 Pixelfed, 동영상 공유 플랫폼 PeerTube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과 니즈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 이용하면서도,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디버스에서는 [@user@instance.com](#) 형태의 분산 ID 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Mastodon 의 경우 [@alice@mastodon.social](#) 처럼 사용자명과 인스턴스 주소를 조합해 개인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ID 체계는 페디버스의 탈중앙화된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SNS 에서의 ID 중복 및 성명 도용 문제를 완화해 줍니다.

2. 페디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2.1.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과 폐해

현재 소셜 미디어 시장은 메타(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수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과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사용자 기반과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광고주 등 상업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정보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페이스북이 8700 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제 3자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역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소유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콘텐츠 정책이 급변하고, 특정 계정이 임의적으로 제재를 받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2.2. 감시 자본주의와 프라이버시 침해

빅테크 SNS 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감시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감시 자본주의란 사용자 감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교한 타겟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며, 나아가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반민주적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정부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여론 조작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디버스는 바로 이런 감시 자본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 임의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공적 담론의 주요 채널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의 정책 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입니다. 트위터의 경우 정치인들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자체 기준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알고리즘에서 배제하는 등 여론 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적 기업이 공적 의사소통 과정을 좌우하는 반민주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플랫폼의 검열 기준과 절차는 매우 불투명하고 자의적이어서, 사용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어떤 이유로 제재를 받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알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3. 페디버스의 주요 특징과 장점

3.1. 분산 협력 기반의 탈중앙화 구조

페디버스는 단일한 중앙 서버 대신, 다수의 독립 서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분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서버(인스턴스)를 만들어 페디버스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서버는 자체적인 정책과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탈중앙화를 구현합니다. 일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전체 페디버스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력 남용이나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탈중앙 구조가 각 인스턴스 간 단절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페디버스 내 서버들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마치 전자우편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메일 서버 간에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것처럼, 페디버스에선 인스턴스라는 경계를 넘어 소통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3.2. 개방형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페디버스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인 액티비티팝을 통해 서버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합니다. 상호운용성이란 이질적인 시스템들 간에도 원활한 정보 소통이 가능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선 모두가 합의한 표준 규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액티비티팝은 W3C 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소셜 데이터(프로필, 게시물, 댓글, 좋아요 등)를 JSON 형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는 한, Mastodon 과 같은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PeerTube 같은 동영상 플랫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폐쇄적 SNS 생태계에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소통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디버스에서는 개방형 표준 덕분에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호운용성은 사용자의 선택권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든지 현재 플랫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나은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들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3. 사용자 주도의 자율적 선택과 통제

페디버스에서는 사용자가 플랫폼의 주인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플랫폼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한다면 직접 인스턴스를 개설해 운영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전반을 사용자 주도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중앙집중형 SNS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판매합니다. 하지만 페디버스에서는 정보주체인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버 운영자로서 다른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도 짐게 되는 것이죠.

콘텐츠 정책 역시 사용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존 SNS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곤 했습니다. 반면 페디버스의 각 인스턴스에서는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커뮤니티 규범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율 규제 가능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페디버스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플랫폼을 고르고, 운영하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4. 페디버스의 영향과 파급 효과

4.1. 사용자 측면: 플랫폼 이동과 주권 강화

페디버스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사용자 주권 강화입니다. 분산 ID 체계 덕분에 특정 플랫폼에 계정이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팔로워 네트워크나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폐쇄적 SNS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데이터와 관계망을 잃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페디버스에서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더 나은 선택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동 가능성은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품질이 낮거나 정책이 불합리한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이탈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플랫폼은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겠죠. 이는 플랫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부응하도록 압박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직결됩니다. 데이터 주권을 갖게 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플랫폼의 검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를 보다 주체적인 시민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2. 산업 측면: 자율 경쟁 촉진과 혁신 기회

페디버스는 기존 빅테크 중심의 SNS 시장에 일대 전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과점 구조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조에서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발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네트워크 효과를 뛰어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디버스에서는 후발 주자라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액티비티팝 같은 개방형 프로토콜을 활용해 기존 인프라와 연동하면서도, 동시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개발사나 개인 개발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서버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 초기 사용자 기반을 페디버스 네트워크 전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는 산업 지형을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닙니다.

나아가 페디버스는 플랫폼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기에, 기업 간 제휴와 협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호운용 가능한 프로토콜 위에서 각자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이죠. 이는 폐쇄적 경쟁이 아닌 개방적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에는 업계 전반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존 SNS 시장이 소수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해 혁신이 정체된 측면이 있다면, 페디버스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꽃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4.3. 사회 측면: 다원적 공론장 형성과 의사소통 변화

페디버스는 소셜 미디어 공간의 다원성을 높이고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된 구조 덕분에 단일한 가치나 이념이 지배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극단의 입장을 가진 사용자들은 자신들만의 서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용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커뮤니티를 꾸릴 수도 있죠. 전체 페디버스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들이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존 SNS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이념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소수자들의 의견은 변방으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페디버스 모델은 이런 중앙집중적 의제 설정 구조에서 탈피해, 보다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공론장을 지향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유의미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또한 페디버스의 개방성은 사회 전반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플랫폼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보 확산은 이종(異種) 집단 간 교류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닫힌 커뮤니티에 갇혀 편 가르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토론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용과 포용력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나 배제가 아닌 경청과 소통의 자세, 그리고 합리적 논쟁을 통한 합의의 모색. 페디버스는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페디버스의 당면 과제와 해법 모색

5.1. 기술적 복잡성 해소와 접근성 개선

현재 페디버스 플랫폼들은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대중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스턴스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분산형 구조로 인한 기능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서버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 툴을 제공하고, 직관적인 UI/UX 설계를 통해 플랫폼 사용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기능들을 표준화해 인스턴스 간 호환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 교육과 지원 체계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연계해 초보자들도 손쉽게 페디버스를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과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페디버스의 문턱을 낮추고 사용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2.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페디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분산형 구조의 특성상 기존 플랫폼들처럼 광고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만큼,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 후원 멤버십, 프리미엄 서비스 등 사용자 기반의 수익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는 페디버스의 탈중앙적 가치와도 부합하는 접근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재단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지원금 확보, 기부자 발굴 등 비영리 섹터와의 협력도 모색할 만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 플랫폼으로서 페디버스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페디버스 고유의 수익 모델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토큰 경제를 구축하거나, 사용자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식의 혁신 말이죠. 중요한 것은 페디버스의 탈중앙성과 사용자 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3. 네트워크 효과 확보와 대중화 전략

페디버스가 주류 SNS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효과 확보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도 충분한 사용자 기반이 없다면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페디버스의 가치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주권, 표현의 자유, healthier social networking 등 페디버스만의 차별화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파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SNS 사용자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데이터 이관을 돕는 툴을 제공하거나, 주요 기능들의 호환성을 높여 전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페디버스로 옮겨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연대 활동도 네트워크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페디버스의 탈중앙성, 개방성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다각도로 전개함으로써 잠재적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페디버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빅테크의 페디버스 진출과 전망

6.1. 메타 Threads의 의의와 한계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디버스 연동을 지원하는 새 SNS 앱 Threads 를 출시한 것은 주목할 변화입니다. 빅테크 기업이 그간 견지해 온 폐쇄적 정책에서 탈피해, 개방형 프로토콜을 수용한 것은 페디버스 진영에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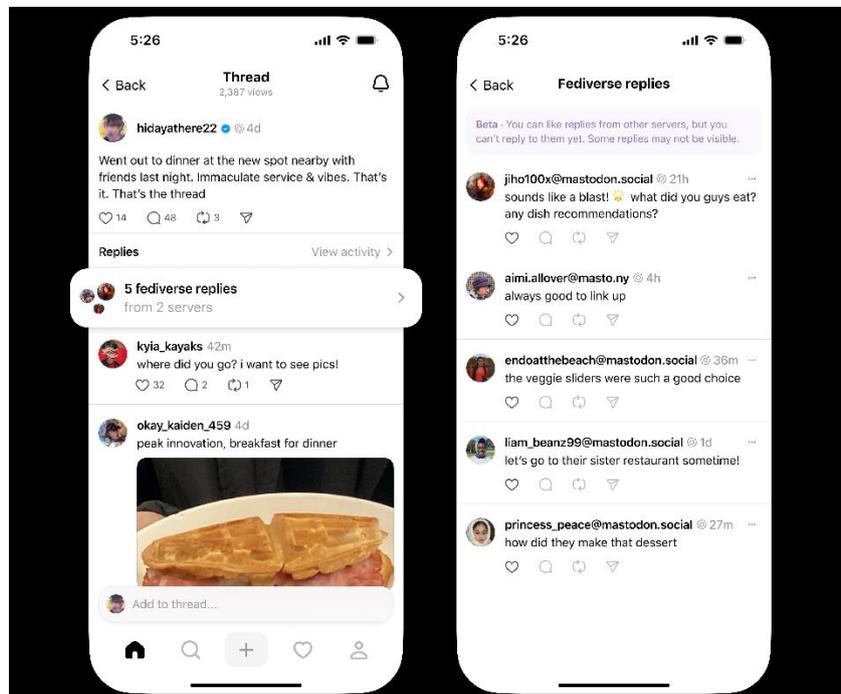
실제로 Threads 는 출시와 동시에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인스타그램과의 긴밀한 연동, 그리고 무엇보다 메타의 막강한 자본력과 영향력이 이런 초기 성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페디버스 진영에서는 Threads의 성장이 자칫 또 다른 빅테크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디버스의 장점인 개방성과 탈중앙성을 명목상으로만 차용할 뿐, 여전히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인 것이죠. 게다가 메타의 과거 악용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진정으로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Threads의 등장이 반드시 위협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는 페디버스 모델이 지닌 잠재력과 영향력을 방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폐쇄성으로 큰 성공을 거둔 빅테크조차 페디버스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는 페디버스가 이제 하나의 대안이 아닌, 소셜 웹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Threads를 계기로 페디버스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의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 덕분에 그간 페디버스를 접하지 못했던 이들도 자연스럽게 탈중앙 SNS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페디버스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Threads의 진정한 페디버스 지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액티비티팝의 표준을 준수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실질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독과점 폐해 재연 여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디버스 진영은 Threads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교두보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6.2. 개방과 혁신 촉진 vs. 독점 지배 심화

Threads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페디버스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빅테크들의 대응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는 페디버스 진영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페디버스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빅테크들의 페디버스 참여가 개방과 혁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메타뿐 아니라 구글,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들도 앞 다퉈 액티비티팝 지원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상호운용성 강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거대 자본과 기술력이 페디버스로 유입되면서 서비스 품질 개선, 신기능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된 경쟁 환경 속에서 오히려 혁신이 가속화되고 사용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독과점의 폐해가 줄어들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것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페디버스마저 잠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본과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페디버스의 핵심 인프라마저 장악함으로써, 개방성의 허울 속에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죠. 나아가 페디버스 고유의 분산적 가치를 형해화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재중앙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페디버스가 애초에 극복하고자 했던 빅테크 종속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페디버스 진영에서는 우선 액티비티팝의 표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소수 기업에 의한 독단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3. 페디버스의 미래상과 과제

페디버스의 궁극적 미래상은 자율과 연대가 조화된 분산 소셜 웹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플랫폼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동시에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 말입니다. 중앙집중적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자기 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인터넷 문명을 열어가는 것이 페디버스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페디버스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용자 친화성 제고입니다. 기술적 복잡성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페디버스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공론장 가꾸기입니다. 자율과 다양성의 가치 속에서도 혐오와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민주적 규범을 세워가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신뢰 구축입니다. 페디버스의 비전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다섯째, 혁신 환경 조성입니다. 개방과 경쟁의 원칙 아래 다양한 기술 실험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페디버스의 미래는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 중앙집중형 플랫폼의 관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페디버스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서는 것.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시민으로의 전환. 그것이야말로 탈중앙 소셜 웹을 향한 페디버스 전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7.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페디버스의 의의와 현황,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컨대 페디버스는 중앙집중적이고 상업화된 소셜 웹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소통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팝 등 개방형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 표현의 자유 신장 등 페디버스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터넷이 추구해 온 자유와 개방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 접근성,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효과 등 페디버스가 직면한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빅테크 플랫폼들과의 경쟁, 나아가 이들의 페디버스 진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복합적 난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디버스의 잠재력과 파급 효과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플랫폼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산업에는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의 동력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는 다원적 공론장 형성에 기여할 페디버스. 그것은 우리가 새로이 그려가야 할 인터넷 문명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페디버스가 보다 성숙한 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인식 전환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페디버스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페디버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소셜 미디어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과 연대의 새로운 소셜 웹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페디버스는 우리에게 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터넷 문명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 변화의 첨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페디버스라는 새로운 길 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끝-

#Fediverse #페디버스 #수익모델 #RevenueModel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사용자후원 #Patronage #프리미엄서비스 #PremiumServices #부가서비스 #Value-addedServices #기부금 #Donations #보조금 #Grant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수익 모델(Revenue Model)

1. 사용자 후원 (Patronage)
 -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버 운영비, 개발비 등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 Patreon, Open Collective 등 후원 플랫폼을 통해 정기·비정기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스토돈 인스턴스 중에는 사용자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2. 프리미엄 서비스 (Premium Services)
 -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유료 과금하는 모델입니다.
 - 예를 들어 가입자 수 제한 해제, 커스텀 도메인, 고급 분석 툴 등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PixelFed(분산형 인스타그램)에서는 프로필 배지 등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3.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 특정 프로젝트나 기능 개발을 위해 사용자 커뮤니티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 Kickstarter 나 Indiegogo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atrix 프로토콜 개발사인 New Vector 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개발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4. 부가 서비스 판매 (Value-added Services)
 - Fediverse 플랫폼 외에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 예컨대 호스팅, 커스터마이징,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Write.as(블로그 플랫폼)에서는 맞춤형 블로그 개발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5. 기부금 (Donations)
 - 사용자나 후원자들로부터 일회성 또는 정기적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 페이팔, 크립토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마스토돈의 Mastodon.social 인스턴스는 Patreon 기반 기부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보조금 (Grants)
 - 재단, 기관 등으로부터 활동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안입니다.
 - NGO, 오픈소스 재단 등이 Fediverse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독일 연방문화재단은 Mastodon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Threads users can now share to the open social web, aka the fediverse((PerezSarah, 2024)([LINK](#))

The Fediverse, explained (PierceDavid, 2024)([LINK](#))

What Is the Fediverse? (Meta, 2024)([LINK](#))

Introducing Threads: A New Way to Share With Text (Meta, 2023)([LINK](#))

신동형의 AI로 작성한 보고서 시리즈

32. 20240628_ AI(Claude3)가 작성한 「CriticGPT, 차세대 RLHF 위한 Human-AI 시너지」보고서
([LINK](#))
31. 20240627_ AI(Claude3)가 작성한 「Computex 2024에서 Top4 반도체 기업의 전략으로 살펴본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 전망」보고서([LINK](#))
30. 20240626_ AI(Claude3)가 작성한 「SLAM 기술: 공간 지능의 핵심 동력」보고서([LINK](#))
29. 20240625_AI(Claude3)가 작성한 「EU의 AI 규제 강화와 빅테크의 대응:Meta와 Apple 중심으로」보고서([LINK](#))
28. 20240624_AI(Claude3)가 작성한 「Intel의 AI 시대 도전과 전략」보고서([LINK](#))
27. 20240621_AI(Claude3)가 작성한 「Claude 3.5 Sonnet: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보고서([LINK](#))
26. 20240620_ AI(Claude3)가 작성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약, 3D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의 부상」보고서([LINK](#))
25. 20240619_ AI(Claude3)가 작성한 「Arm, AI 컴퓨팅의 미래를 향한 비상(飛上)」보고서([LINK](#))
24. 20240618_ AI(Claude3)가 작성한 「AMD, AI 시대 컴퓨팅 혁신으로 지능화 가속화」보고서
([LINK](#))
23. 20240617_ AI(Claude3)가 작성한 「Apple의 차별화된 AI 전략」보고서([LINK](#))
22. 20240614_ 2024 컴퓨텍스 기조연설로 본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과 전략, 「엔비디아, AI 시대를 이끄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LINK](#))
21. 20240613_ AI(Claude3)가 작성한 「AI PC 시대의 도래: 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변화」보고서
([LINK](#))
20. 20240612_ AI(Claude3)가 작성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이렇게 생각하고 배웁니다」보고서
([LINK](#))
19. 20240611_AI(Claude3)가 작성한 「WWDC2024 애플 개인맞춤형 지능 기술로 새로운 미래 제시」 보고서([LINK](#))
18. 20240517_AI(Claude3)가 작성한 빅테크 기업 AI 전략 비교 분석 보고서[MS & OpenAI vs.

Google vs. Meta의 AI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LINK\)](#)

17. 20240515_AI(Claude3)가 작성한 Google I/O 2024 보고서, AI 혁신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LINK\)](#)

16. 20240514_AI(Claude3)가 작성한, OpenAI의 GPT-4o 공개, 멀티 모달 AI 혁명의 신호탄[\(LINK\)](#)

15. 20240425_AI(Claude3)가 작성한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AI Vision으로 세상을 바꿉니다[\(LINK\)](#)

14. 20240425_AI(Claude3)가 작성한 보고서,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도래: Phi-3와 Llama-3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LINK\)](#)

13. 20240424_AI(Claude3)가 작성한 보고서: 경량 AI 시대의 개막, Microsoft의 Phi-3가 가져올 산업 혁신과 AI 대중화[\(LINK\)](#)

12. 20240423_AI(Claude3)가 작성한 메타플랫폼의 XR 생태계 新 전략[\(LINK\)](#)

11. 20240421_AI(Claude3)가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LLAMA3과 On-Device AI 시대 도래
[\(LINK\)](#)

10. 20240419_AI(Claude3)가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라마3(LLAMA3) 출시와 전망 보고서
[\(LINK\)](#)

9. 20240419_AI(Claude3)가 정리 작성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프롬프팅 프레임워크 설명[\(LINK\)](#)

8. 20240412_AI(Claude3)가 작성한 인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과 비전[\(LINK\)](#)

7. 20240408_AI(Claude3)가 작성한 2024년 중국 AI LLM 산업 발전 보고서 정리[\(LINK\)](#)

6. 20240408_AI(Claude3)가 작성한 Embodied AI: 현황, 전망, 그리고 미래[\(LINK\)](#)

5. 20240403_AI(Claude3)가 작성한 반도체 유통기판 공급망 분석 보고서 (전자신문 기획기사 참조)[\(LINK\)](#)

4. 20240401_AI(Claude3)가 작성한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략 비교 분석 보고서[\(LINK\)](#)

3. 20240326_AI(Claude)가 쓴 애플의 현재 AI 전략에 대한 회고: 글로벌과 개인정보보호 관점(긍정적)[\(LINK\)](#)

2. 20240322_AI(Claude3)가 작성한 엔비디아 파트너로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HBM 사업을 중심으로[\(LINK\)](#)

1. 20240320_AI(Claude3)가 작성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GTC 2024' 기조연설 리뷰[\(LINK\)](#)